

“전북 동부권 발전 위해 지원추진단 별도 신설을”

김윤덕 의원, “공공 건강증진 산업벨트 등 지자체 특성 맞는 사업 발굴해야”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이 “전북 내에서도 소외를 받는 동부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인력과 행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동부권지원추진단을 별도 신설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특히, “남원, 임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호남과 경남, 전북과 전남 등 3중 소외지역에 더해 전북 내에서 소외를 받는 4중 소외지역이라는 이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의료 공백, 특화 산업 부재 등 낙후가 심화되고,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은 형식적인 자금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추진 중인 지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추진과 협업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동부권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동부권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

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체적인 발전 방향으로 공공 건강 증진 산업벨트, 농촌농업융합원 등 동부권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상시 관리·지원하는 동부권추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전북 동부권에 위치한 지자체는 4중 소외를 받고 있다”며 “발행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동부권추진단을 구상해 지속적인 발전 방향 모색과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을 메카노바이오 혁신 의료기기 산업 중심지로”

중재의료기술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김성주 의원 “의료의 중심 영리가 아닌 사람·환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7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중재의료기술 활용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서병)이 27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중재의료기술 활용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하는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혁신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를 기반으로 전북을 혁신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란 인체의 고분자 조직 접착을 최소화하는 의료 기법인 ‘중재 의료’를 활용한 기계장치, 환부의 전기적 신호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모니터링하는 의료 기법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하는 이광욱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기기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송윤선 서울 아산병원 신경경제학 영상의학과 교수가 ‘중재의료기기

의 국산화 개발 필요성 및 Unmet Needs’, ▲유현승 (주)OCBb 대표가 우리나라 스타트업 국산화 과정 소개 및 비전’, ▲김우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메디칼센터 센터장이 ‘최소침습기반 중재기술 의료기기의 시장 및 기술동향과 국산화 필요성’, ▲박찬희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나노바이오계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전북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는 ▲강성수 전남대학교 수의대 생체재료센터 센터장 ▲곽효성 전북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이세철 (주)에스아이메드 대표이사, ▲이영태 (주)OCBb 대표이사, ▲임아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팀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가 참여해 의견을 더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의 중심은 영리가 아니라 사람·환자”라고 강조하면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며 더 효과적 치료를 진행하는 기술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의 가능성과 파급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전북을 메카노바이오 혁신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새로운 산업에 목말라 있는 전북의 신산업 유치와 발전을 위해 ‘정당, 정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산-정-학 네트워크와 순환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내달 1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전북선관위, 18세 이상 국민도 등록·후원금 모금 가능

전북선관위는 오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북도지사선거와 전북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북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지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관내(방문판매 제외)등의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선거과(063-230-2310),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도과(063-230-233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기업 키우는 전주 멘토 되어달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박용만 전 상의회장 만나 전주경제 발전 방안 논의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소재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박용만 전 부산그룹 회장 및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힘내라 전주경제’ 손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을 키우는 전주의 멘토’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그룹을 중후 장대형 그룹으로 변화시키고, 대한상의를 우리나라 경제 1단체로 이끈 주역으로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박용만 전 회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워 전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판을 제대로 짜겠다는 의지다.

27일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박용만 전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울 중구 소재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을 방문해 박 전 회장과 전주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최근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민문명담)’라는 타이틀로 2시간가량 코로나 위기 극복,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규제개혁,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전 회장에게 전주를 역사적 가치와 다양한 문화자산을 품고 있는 도시라고 소개한 뒤 “하지만 경제 체력이 약하다 보니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배움을 청한 이유

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 경영으로 부산본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식과 지역사원 활성화, 실제 기업을 키우는 도시가 되기 위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어, 전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멘토가 되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며 “전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은 “전북대학교에서 강연한 적이 있어서 전북·전주지역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게 없더라”며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게 잘 된 것일 수 있다. 기존의 질서, 기득권의 저항을 덜 받기 때문이다. 해서 큰

자본 없이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인재 양성·확보를 위해서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창의적인 친구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전주경제 멘토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호탕하게 웃은 뒤 “은혜했지만 기업과 경험을 나누는 건 언제나 좋다. 언제든 전화하라”고 화답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격의 없는 소통과 원칙의 리더십을 보여준 박용만 전 회장을 만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나는 대화를 토대로 전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영·호남 대학교수 1200명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지역 불균형,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 사회 양극화 등 고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극복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능력과 경험을 겸비했다”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번 교수·연구자들의 공동지지 선언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도시인 부산, 대구, 전주, 광주에서 동시에발적으로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이러



영호남 102개 대학 교수 전북대표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 영·호남의 바람이 충청, 경기 강원을 거쳐 수도권 대학교수들까지 차례차례 지지 선언으로 이어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 남부지역 간의 균형발전 정책의 경험을 살려 영호남의 화합뿐만 아니라 충청, 강원 등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도 맡아야 할 실천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호상 기자

6·1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자랑스러운 남원, 반듯한 남원”

최경식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남원시장 출마 선언



최경식(56)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27일 남원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남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반듯한 남원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최경식씨는 “탄소중립의 시대와 그린 뉴딜 그리고 6차 산업 등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올해 선택하는 남원시장 선거는 남원의 향후 10년, 나아가 5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남원의 많은 시민 분들께서 퇴행적 정치행태에 대한 불신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며, “각 지자체의 무한경쟁으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주민회합, 중앙인맥, 행정경험이 검증된 혁신의 책임자가 남원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문위원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우선적으로 ‘남원발전을 위한 6가지 분야 50개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와 농촌과 도시, 전통과 첨단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자랑스러운 남원 반듯한 남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도내 간호사 2022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북지역 간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27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과 간호정책을 확실하게 이행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도내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높은 이해와 철학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대한방직 부지, 전주랜드마크로”

유창희 전 부의장 “개발과정에 지역업체 참여시킬 것”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개발과정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켜 개발 이익금으로 시정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의장은 2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방직 부지를 한옥마을과 연계,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며 “23조원 인력의 개발공사에 지역건설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과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부의장은 “코로나 이전, 한옥마을 관광객이 연간 1천만 명에 달했으나 체험과 숙박시설, 쇼핑공간 부족 등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 특정기업의 특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전제 한 뒤, “부지가 고용과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개발에 따른 이익금 환수 범위와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계획이득수는 토지와 현금 시설을 포함하는 인이 가장 높게 나왔다”며 “개발업체와 사전협상체를 통해 현금은 시정사 이전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시설은 컨벤션센터를 업체가 지어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